

01 교회소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

지난 17년 동안 권능의 무안단물은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국내외 무수한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02 생명의 말씀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1)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온전한 십일조이다.

03 특집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

상세불명의 마비성 사시를 치료받은 성민 집사와 나사볼트를 삼킨 외손자가 목자의 공간 안에서 보호받은 박갑연 집사의 간증.

04 간증

“무안단물로 응답받았어요!”

피부병과 화상을 신속히 치료받고 소원하던 예쁜 쌍꺼풀이 생기는 등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해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778호 2017년 3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사랑과 권능의 무안단물 17주년 맞아

“
 생명을 살리네 아픈 곳 치료하네
 영안이 열리며 무지개를 보고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보네
 하나님 베푸신 권능의 역사
 이 땅의 물이 아닌 아버지의 근본의 물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네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보네
 믿음 가진 자 응답받네
 ”
 만민찬양 「권능의 단물」 중에서

MUAN SWEET WATER
The 17th Anniversary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무안 만민교회(담임 김명술 목사)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1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 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감사 이수진 목사(예성연합 부총회장)는 ‘하나님께 영광’(시 135:3-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을 비롯해 무안군 및 해제면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과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축하해 주었다.

권능의 무안단물의 유래는 200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안만민교회가 위치한 곳은 간척사업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곳이어서 지하수를 파도 마실 수 없는 바다의 짠물만 나왔다. 이에 약 3 km 떨어진 이웃 동네에서 호수를 통해 공수해야만 했다.

김명술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출 15:25) 하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산상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도 짠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셨으며, 이를 권능의 ‘무안단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후 무안단물의 탄생은 곧 성경이 참임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

지난 17년간 무안단물을 통해 전 세계에서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왔으며, 죽어가던 동식물이 살아나고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는 등 갖가지 희한한 일들을 체험해 왔다(관련 간증 3, 4면).

이제 권능의 무안단물터는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3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 해수어(바닷고기)와 담수어(민물고기)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 이래 관람객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무안단물은 2007년과 2010년,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7종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미네랄이 풍부하며 칼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권능의 무안단물을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고 토지 대신 십일조와 기타 예물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신 18:1~2).

오늘날도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과 레위족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처럼 헌금으로 나온 하나님의 재정은 오직 영혼 구원과 직결된 일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온전한 십일조를 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 곧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농부가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내었다 해도 사람의 수고만으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나 토양, 물과 햇빛, 비와 바람을 주셔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소득을 얻는 경로가 저마다 다르다 해도 모든 산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 기반을 두고, 결국은 근본 생명 자체나 천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중 십일조만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물 곧 십일조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흔들여 넘치도록 축복 주신다 하셨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

다는 것이니 결국은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꼭 십일조를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십일조 외에도 예배와 기도, 찬양, 찬성, 구제 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은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질은 생명에 비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하신 대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의 증거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일조 하나만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사람의 눈을 의식해 십일조를 하는 외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할 중심인데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일조는 단순히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 하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성, 봉사해도 성경에 기록된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초신자인 경우, 성경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중심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라는 규례를 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의심하고 십일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고 서라도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축복하시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축복을 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갈 6:7).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최소한의 씨앗을 심도록 명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인정받고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영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인 주일 성수에 이어 온전한 십일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십일조의 개념과 유래

십일조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밝히 교통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주관을 받아 십일조를 드렸지요(창 14:20). 그러나 십일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 규례로 공포된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말 3:10) 말씀하심으로 백성이 드린 십일조를 하나님 일에 쓰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고란 성전에 속한 창고이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은 육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영혼을 먹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요. 즉 하나님 성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상세불명의 마비성 사시를 치료받았습니다”

성민 집사 (48세, 2대대 19교구)

2016년 12월 초,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눈이 너무 피곤하였습니다. 자고 그다음 날 일어나니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안과에 가서 검진한 결과, ‘상세불명의 마비성 사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안과에 찾아가 검사를 했지만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며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사시가 심해서 교정 안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업무도 운전도 힘들었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으니 주차를 하다 남의 집 벽을 손상시키고 차까지 수리하는가 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도 발을 헛디딜까봐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생각하며 기도하니 ‘감동적인 영화니까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TV와 영화에 빠져 들었던 제 모습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뒤 무안단물을 눈에 계속 뿌리며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지요.

12월 16일 금요일아예배를 마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인사드릴 때 제 눈에 당회장님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치료받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회장님 손을 제 눈에 갖다 대니 당회장님께서 “빛이여 임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뒤 오른쪽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은 여전히 복시로 보였지요.

저는 또다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였고 12월 25일, 나머지 한쪽 눈도 치료받자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

과, 왼쪽 눈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여 2017년 1월 초에는 양쪽 눈이 모두 정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노안 증상도 사라져 시력까지 좋아졌지요.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 1월 26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간증하고 있는 성민 집사 부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는



- 1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 2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합니다
- 3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 4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압니다
- 5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 6 점잖고 겸손하며 험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 7 눈망울이 맑고 빛을 냅니다
- 8 의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맵시와 솜씨도 있으며 사치하지 않습니다
- 9 정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합니다
- 10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설교 ‘신부의 자격’ 중에서

“10개월 된 외손자가 나사볼트를 삼켰으나 무탈하게 지켜주셨어요”

박갑연 집사 (59세, 3대대 28교구)



지난 1월 23일, 10개월 된 외손자를 돌보던 중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아기가 만지작거리며 놀던 서랍장 손잡이의 나사볼트가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진 나사볼트는 길이가 1.5 cm로 아기가 삼켰다면 큰일이라 저는 주변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기는 여전히 잘 놀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 몰라 무안단물을 먹고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의 주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살펴보았지만 평소와 다름이 없었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난 1월 26일, 당회장님 설 만남 시 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받고 나오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의 변에서 나사볼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공간 안에서 나사볼트가 3일간 아기 몸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March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3.5~3.1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일곱교회 25
- 축복 8
- 창세기 강해 111
- 십계명 6-9
- 요한일서 강해 9-14
- 천국 1-5
- 마음발을 개간하자 7
- 사랑장 1-4
- 믿음을 책망하시니 1-4
- 요한계시록 강해 11-17

GCN TV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이수진 목사)
- 굳은 마음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9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6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1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9(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세혜보기) 18
- 권능 스페셜 6
- 창조와 과학 26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71
- 내 마음의 찬양 33
- 모두 드려요 51

해외성회 프로그램

- 화상 5
- 인도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8

GCN 채널
ktolleh tv 882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무안단물 마니아가 되었어요”

마야 데비 성도 (인도 델리만민교회)



2016년 5월 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모기가 물린 듯이 가려워 계속 긁다보니 피부가 붉어진물과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폭염에 정전까지 잦아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어려워서 피부병이 유행했지요. 급기야 어깨까지 붓고 통증이 심해서 오른쪽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진통제를 먹어도 오히려 악화되어만 갔지요. 저는 그제야 하나님께 치료받아 야겠다고 결심하고 약을 끊은 뒤 무안단물을 환부에 지속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녹음된 당회

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도 정성껏 받았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통증과 부기가 사라지더니 6월 초에는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남편 순일 꾸마르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서 위장병이 치료되고, 그토록 시달리던 악몽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월급의 두 배나 되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즐겨 봉사합니다. 무안단물이 가정상비약이 되어 감기나 열병도 문제없으니 가족 모두 건강하지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남편 순일 꾸마르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서 위장병이 치료되고, 그토록 시달리던 악몽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면서 월급의 두 배나 되는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즐겨 봉사합니다. 무안단물이 가정상비약이 되어 감기나 열병도 문제없으니 가족 모두 건강하지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궁암, 퇴행성관절염을 치료받고 무안단물로 쌍꺼풀도 생겼어요”

박영자 집사 (52세, 중국 1교구)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어머니와 언니의 전도를 통해 2011년 인터넷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안단물을 구하기 힘든데, 저는 컵에 조금 남아있는 무안단물을 눈에 바른 뒤 순식간에 쌍꺼풀이 생기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요. 정말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하혈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니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금식기도를 드린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요청하여 저는 중국에서 GCN방송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자궁암이 치료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는 한국에 와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고생했던 퇴행성관절염도 치료받았지요. 무안단물로 쌍꺼풀이 생긴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동응답서비스 기도와 무안단물로 화상이 빨리 치료되었어요”

오은혜 아동 (12세, 구미만민교회)



2016년 4월 27일(수), 저는 컵라면을 먹기 위해 전기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 컵라면 용기에 부으려다 그만 제 왼쪽 허벅지에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 뜨거웠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가 담긴 자동응답서비스 02)830-5320을 눌러 일곱 번 기도를 받았더니 즉시로 화기가 물러갔지요.

무안단물을 수시로 환부에 뿌리며 그날 저녁 담임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물집이 크게 몇 군데 생겼지만 계속 무안단물을 뿌리고 당회장님 환자기도를 받으니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달리기 연습까지 하였지요. 그다음 날 운동회에서 저는 100m 달리기 1등과 계주 팀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4월 30일(토), 울산만민교회에서 있었던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초청 성령충만기도회 시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로는 상처가 더욱 빨리 아물어 3주 만에 딱지까지 완전히 떨어져 온전케 되었지요. 흉터도 전혀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안단물 바르고 쌍꺼풀이 생겼어요”



최선숙 권사 (46세)



박영준 장로 (60세)



박은경 집사 (45세)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